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보 도 자 료 • 배포 : 2020. 10. 28.(수)	
담당자	• 스마트시티사업단 박정원 부단장, 이상아 연구원 • ☎ 070-4465-0245, 070-4465-0248	
보도일시	• 10월 2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

스마트시티사업단, 세계 최초 스캐닝 라이다(LiDAR)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시연회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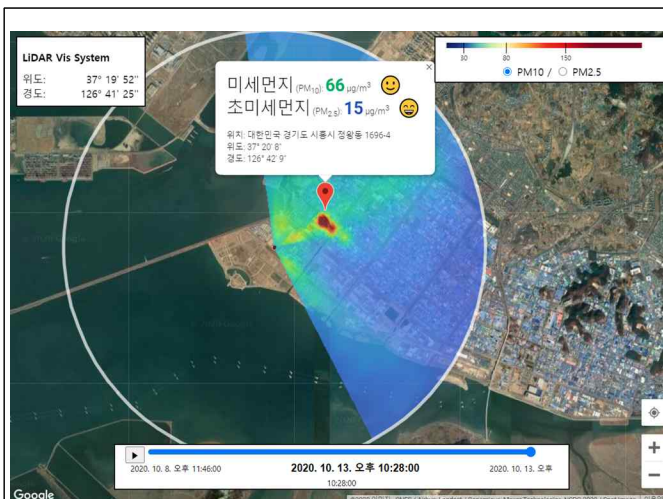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) 스마트시티사업단*은 (초)미세먼지 농도를 30m 해상도로 반경 5km 스캐닝 할 수 있는 스캐닝 라이다(LiDAR) 미세먼지 관리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오는 29일(목) 시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 2캠퍼스 옥상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스마트시티사업단 :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(이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)를 추진하고 있으며,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 구축과 도시(대구, 경기도 시흥) 실증을 목표로 함

-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리빙랩형 실증을 위해 선정된 “라이다 스캐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증(부경대학교)” 과제의 연구성과로서 시연회 이후 스마트시티 실증도시인 시흥시 정왕동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.
- 이번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(LiDAR)는 레이저 빔을 대기 중으로 발사하여 대기입자에 의해 후방 산란되는 양을 측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입자의 특성분석을 통해 미세먼지(PM₁₀)와 초미세먼지(PM_{2.5})를 구분한 후 농도를 산출하는 신기술로서

○ 수평적으로 360° 방향을 스캐닝하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, 광역적이고 조밀한 관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.

□ 스마트시티사업단 조대연 단장은 “지역특성과 연계한 이번 스마트 시티사업단의 우수한 성과가 시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.”고 밝혔다.



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위치기반 농도 시각화



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 장비